

◆ [Focus] 미 1~4월 중 대중 수입 동향

◆ [What's News]

- (경제동향) 미 5월 CPI 4%로 둔화... 그러나 연준 기대치엔 미흡
- (IRA) 조 맨친 상원의원,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의견서 제출
- (무역협정) 美 의회, 미-대만 무역협정은 의회 승인받아야
- (강제노동) 美,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관련 제재명단 2개사 추가 등재
- (통상일정) 제4차 IPEF 회담, 7월 9~15일 부산에서 개최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대중수입) 미국 1~4월 중 대중 수입 동향

1 대중 상품 수입 급감세 확인 (상무부 통계 6.7.자)

- 올해 1~4월까지 미국의 대중 누적 상품 수입액은 1,314억 달러에 달하며,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수입액인 1,761억 달러에 비해 -25.4%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중
 - 같은 기간 미국의 전 세계로부터 수입은 약 9,958억 달러이며, 전년에 기록했던 1조 477억 달러에 비해 약 5% 감소(519억 달러)
 - 즉, 미국의 전 세계 수입에 비해 대중 수입이 급감하는 추세 부각

2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축소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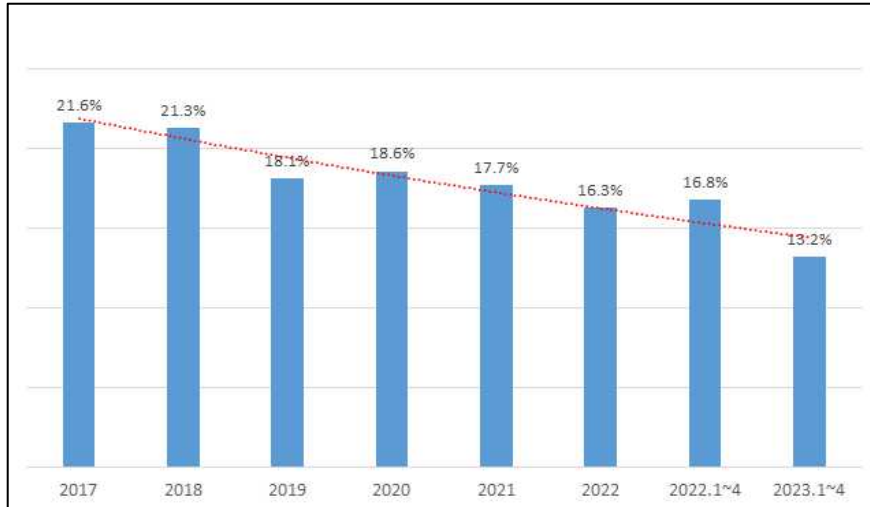
- 미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'17년 당시 21.6%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점차 낮아져, '22년 16.3%까지 축소
 - * ('17) 21.6% ⇒ ('18) 21.3% ⇒ ('19) 18.1% ⇒ ('20) 18.6% ⇒ ('21) 17.7% ⇒ ('22) 16.3%
- '22년 1~4월까지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6.8% 수준이었으나, 올해는 같은 기간 13.2%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

< 미국의 대중 상품 수입 추이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추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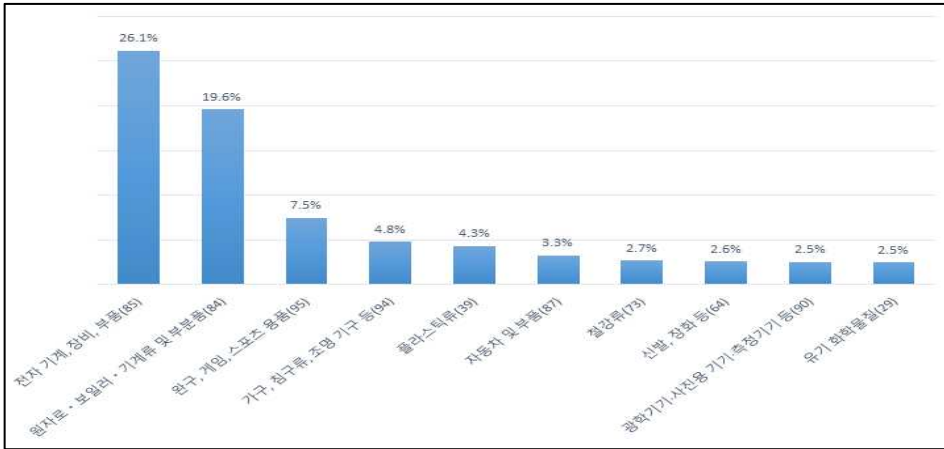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3 올해 1~4월 대부분 품목에서 對中 수입 감소세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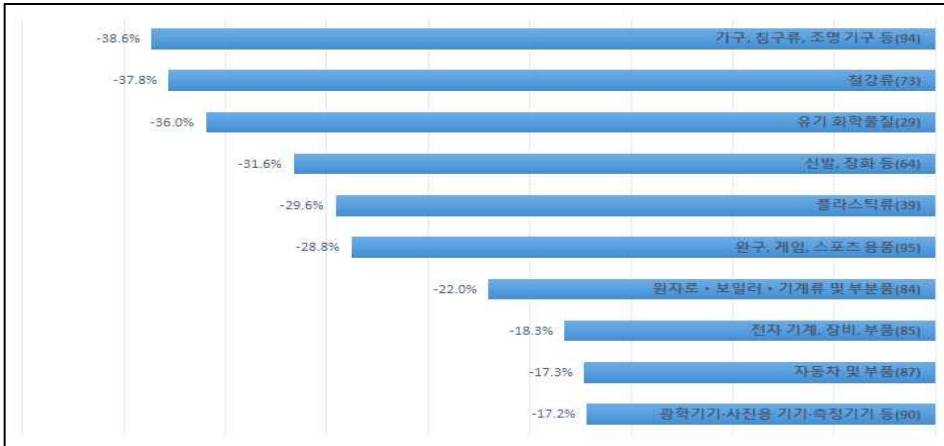
- HS 코드(2단위) 기준 전체 98개 품목 중 13개를 제외한 85개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('23.1~4월)이 전년에 비해 감소
 -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의 76%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이 작년에 비해 24% 이상(320억 달러) 감소
 - 특히, 전자·기계·장비 및 부품(HS 코드 85단위)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 달러 이상(-18.3%) 가장 많이 감소했고,
 - 그 외 원자로·보일러·기계류(84단위), 완구·게임·스포츠(95단위), 가구·침구·조명(94단위) 등 중국의 주력 품목 수입 대폭 감소

< 미국의 전체 대중 수입에서 상위 품목 비중(2021년 기준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1~4월 미국의 품목별 대중 수입 증감 (2022년 대비 2023년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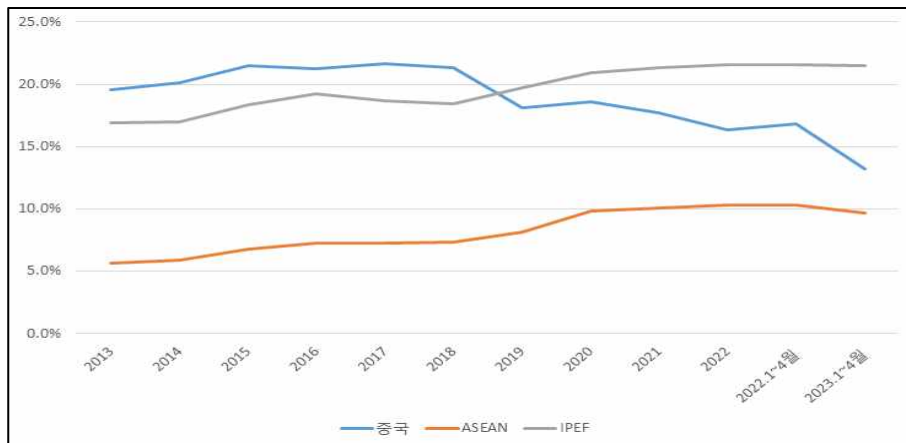
[자료] US Census Bureau

4 2019년을 기점으로 IPEF 가입국으로부터 수입이 대중 수입을 추월

- 2013~2022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입은 연평균 2.1% 성장에 그쳤으나, IPEF 가입 14개 국가로부터 총수입은 7.0% 증가
 - 특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싱가포르 등 ASEAN 10개 국가로부터 수입은 같은 기간 11.4%의 빠른 성장세를 보임.
 - * 우리나라부터 수입은 7.1% 증가 (2013~2022년 연평균)
- 2019년 IPEF 전체 가입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.7% 기록, 최초로 중국의 점유율(18.6%)을 앞지르기 시작. 2022년에는 IPEF 21.6% 對 중국 16.3%로 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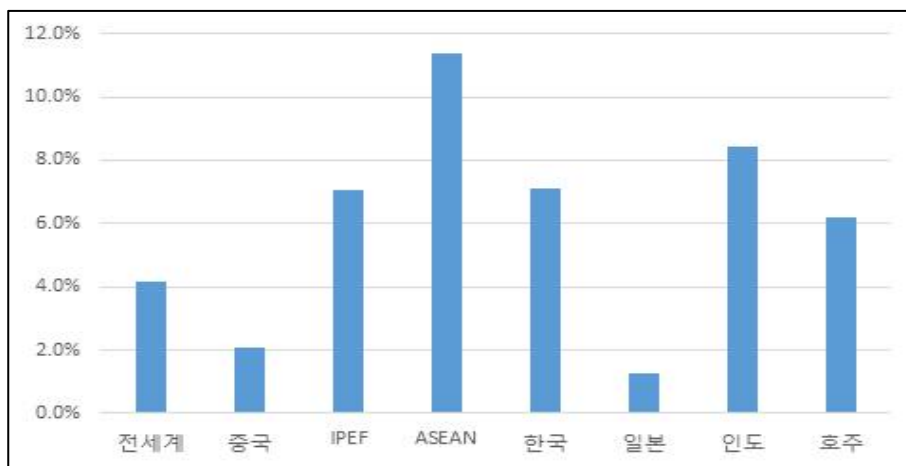
- 올해 1~4월 미국의 대중 수입은 전년 대비 25.4%나 줄었으나, IPEF 가입국으로부터 수입은 5.4% 감소에 그침.
- 같은 기간 동안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은 10.8% 감소했으며,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도 소폭(-0.8%) 감소함.

<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비교 (중국 · IPEF · ASEAN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< 대미 수출 연평균 성장률 비교 (2013~2022) >



[자료] US Census Bureau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|
| ■ 자료원 | US Census Bureau (6.7) |

□ **(경제동향) 미 5월 CPI 4%로 둔화... 그러나 연준 기대치엔 미흡**

- (개요) 美 노동부, 5월 CPI를 4%로 발표, 2년여('21.3월) 만에 최저
 - 4월 대비 연간(4.9% → 4.0%) 및 월간(0.4% → 0.1%) 상승폭 둔화
 - 근원 CPI는 5.3%를 기록, 전월(5.5%) 대비 0.2%p 감소
 - * 월간 상승 폭은 3월부터 5월까지 0.4% 유지
 - 6월 연준 회의(6.13-14) 앞두고 발표, 현지 언론, 기준금리 동결 전망
- (상세) 에너지 관련 상품·서비스 가격 인하가 상승폭 둔화의 주 요인
 - 전월 대비 연료유(Δ7.7%), 휘발유(Δ5.6%) 뿐만 아니라 전기(Δ0.7%), 가스(Δ4.9%) 등의 가격이 하락
 - 그러나 중고차 가격(+4.4%)과 자동차 보험료(+2.0%), 자동차 유지관리 서비스(+0.6%)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, 주택 임대료도 지속 상승* 추세
 - * 주택 임대료 상승 추이 : (3월) +0.5% → (4월) +0.6% → (5월) +0.5%
 - 장바구니 물가(+0.1%)와 외식 물가(+0.5%)가 상승하는 등 지난 2개월 간 유지되었던 식료품 물가 다시 오름세(+0.2%), 연간 6.7% 상승
- (반응) 연준 기대치(2.0%)에는 미흡하나 시장 기대치(4.1%)보다 양호
 -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상승으로 출발
 - * 작년 6월에 정점(+9.1%)을 찍고 지속 하강 중
 - NYT는 연준의 물가 잡기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, WSJ, 6월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망
 - 백악관은 CPI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11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있다 평가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
■ 자료원 | 노동통계청(6.13), NYT(6.13), WSJ(6.13), 백악관(6.13)

□ (IRA) 조 맨친 상원의원, 재무부 IRA '30D' 청정차량 세액공제 관련 의견서 제출

- (개요) 조 맨친 상원의원, 재무부에 IRA '30D' 청정차량 세액공제 의견서 제출
 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*이 재무부가 요청한 IRA의 청정차량 세액공제 세부지침 제안(NPRM) 관련 의견서 제출
 - *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(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, NPRM)
 - 조 맨친 의원은 의견서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지적하며 재무부의 제안된 세부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고 주장
 - (상세) '1) 부가가치 산출방식, 2) 구성 재료, 3) 무역 협정' 지적
 - 1. 50% 부가가치 산출방식(The 50% of value added test)**
: 차량 배터리 보조금의 핵심 광물 요구 사항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“새롭고 승인되지 않은 불법 검증과정(new, unauthorized, and unlawful test)”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행정부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
 - 2. 구성 재료(Constituent materials) 핵심 광물 범주 분류**
: 배터리 '구성 재료'를 보조금의 핵심 광물 범주로 분류함에 따라 음극 분말 제조 등 북미 밖의 배터리 제조 과정도 광물 처리 과정으로 간주, 따라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
 - 3. 자유무역협정 국가(Free trade agreement countries)**
: 기존 미국과의 FTA 체결국 뿐 아니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을 추가했으며,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통용되는 FTA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, 미국 무역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지 않은 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
- ※ 재무부는 세부지침(NPRM)을 4월 17일 게시, 6월 16일(금) 까지 60일 간 의견 모집 중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상원에너지위원회 보도자료(6.12), 폴리티코E&E(6.12), 재무부(3.31)

□ (무역협정) 美 의회, 미-대만 무역협정은 의회 승인받아야

- (개요) 美 상하원, 무역협정 시 의회와의 협의·승인을 필수로 하는 법안 제출
 -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은 ‘미국-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(U.S.-Taiwan Initiative on 21st-Century Trade)’를 의회가 심사하고 향후 협정에 대한 엄격한 규칙 제안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 발의
 - USTR, 시장접근성 조항 없는 무역협정은 의회 승인 없이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다 주장, IPEF처럼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
- (상세) USTR의 의회와 소통 부족 지적, 투명성 및 협의 요건 제시
 -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*은 성명에서 “이 법안은 의회가 ‘미국-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’에 따라 체결된 첫 합의를 승인하고, 향후 이니셔티브 하의 모든 협정에 대해 강력한 투명성과 협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”고 밝힘
 - * 상원 재무위원회 론 와이든(Ron Wyden)위원장, 마이크 크레이포(Mike Crapo),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(Jason Smith) 위원장, 리처드 닐(Richard Neal) 하원의원
 - 법안에는 향후 USTR이 협상을 위한 문안을 대만에 전달하기 전에 위원회에 먼저 제공하고, 대만의 초안 제안서 및 통합 협상 문안 공유, 의회의 최종문안 검토 시간 보장 등을 포함
 - 또한, 이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될 경우, 행정부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건과 협정을 위해 수행해야 할 단계,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의회와의 협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 사항도 포함
- (비고) 폴리티코, 이번 법안 입법 시 이후 IPEF, APEP로 확대 가능성 언급
 - 현재 하원 세입위 42-0 만장일치 통과, 상원의 무역 위원들도 법안 지지 중
 - * 단, 상원의원 법안 통과 시기와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원내 투표 여부 및 시기는 미정
 -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이번 법안 통과 시, 대만 무역협정 뿐 아니라 IPEF, APEP* 등 다른 무역 협정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
 - *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(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)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박소현
■ 자료원	인사이드트레이드(6.9), 폴리티코(6.13)

□ (강제노동) 美,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관련 제재명단 2개사 추가 등재

- (개요) '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' 관련 중국 기업 2개사 Entity List에 등재
 - 美, 중국 신장 지역으로부터 수입 금지를 확대하여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 Ninestar와 화학업체 Zhongtai를 Entity list에 추가했으며, 두 기업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
- (상세) 美 국토안보부, 수출통제 기업 명단 22개 업체로 확대 발표(6.9)
 -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서에서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이 신장 정부와 협력하여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노동에 관여했다고 주장
 -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기업들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한 신장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
 - 미 국토안보부는 △강제 노동으로 신장에서 제조하는 단체, △신장 정부와 협력하여 강제노동자 또는 위구르인 등 박해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모집·수송·은닉·수용하는 단체, △신장 정부 또는 신장생산건설단과 협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를 조달하는 시설 및 단체 등을 식별하여 제재명단에 등재
- (참고) 미 의회는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,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만장일치 통과
 -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의 더 많은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작년 여름 이후 13억 달러 규모의 선적분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시행했다고 설명
 - 미 의회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 등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인권 유린 혐의가 있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, 만장일치로 통과
 - 그러나 중국은 위구르인 투옥 및 이슬람교인 대상 강제 노동 강요 및 인권 유린 등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 중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한유림
■ 자료원	Bloomberg(6.11), DHS(6.9)

□ **[통상일정] 제4차 IPEF 회담, 7월 9~15일 부산에서 개최**

- 美 상무부, 제4차 IPEF 협상(7.9~15)을 위한 한국 부산 방문 발표
 - 美 상무부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IPEF 4차 회담 참여 보도자료 게시
 - 미국 측 부처 대표단으로 상무부 샤론 위안(Sharon H. Yuan) 고문과 무역대표부(USTR) 사라 엘러만(Sarah Ellerman) 보좌관 참여
 - 제4차 협상에 관한 추가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

<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개요 및 경과>

명 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(IPEF :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)
참여국 (14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
구 성 (4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역(Connected Economy-Trade): 다양한 무역 규범 정립 관련 협력 의제 ② 공급망(Supply Chains): 국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및 안정화 협력 ③ 청정 경제(Clean Economy): 파리협정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공동 대응 ④ 공정 경제(Fair Economy):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노력 <p>* ①: 美 USTR 리드, ②③④: 美 상무부 리드</p>
필라별 협상참여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 필라 모두 참여 중 (인도는 무역 불참 / 공급망·청정경제·공정경제 참여)
협상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 협상 : '22.12.10~12 호주, 브리즈번 • 특별 협상 : '23.2.8~11 인도, 뉴델리 • 2차 협상 : '23.3.13~19 인도네시아, 발리 • 3차 협상 : '23.5.8~15 싱가포르 • 장관 회담 : '23.5.27 미국, 디트로이트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- 자료원 | 美 상무부 보도자료(6.13) 등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Inflation Eased to 4% in May, Still Above Fed Target (미 5월 CPI 4%로 둔화... 그러나 연준 목표치엔 미달)</p> <p>4월(4.9%) 및 지난 6월의 정점(9.1%)의 절반 이하로 둔화되었으나 연준 희망 수치인 2% 보다는 아직 높은 수치. 연준, 수요일에 기준금리 결정 예정</p>
The Washington Post	<p>Trump pleads not guilty to federal charges (트럼프, 연방의 기소에 대해 무죄 주장)</p> <p>트럼프 전 대통령,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, 플로리다 자택 기밀문서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. 트럼프는 연방법원에 기소된 첫 번째 전 대통령임.</p>
The New York Times	<p>Cooler Inflation Bolsters Arguments for Fed to Pause Rate Increases (인플레이션 둔화에...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주장 힘 얻어)</p> <p>소비자물가 인상률, 지난 2년 중 가장 최저치 기록. 오늘부터 이틀간 예정된 연준 정례회의 직전 발표된 긍정적 신호. 단, 7월에는 재인상이 전망됨.</p>
CNN	<p>Grocery prices are rising in America again. Here's what got more expensive (다시 오르는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)</p> <p>인플레이션율은 둔화하고 있으나,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저소득층에 악영향. 마가린(22.5%), 밀가루(17.1%), 빵(12.5%) 등이 1년 동안 급등하였음.</p>

* 미국 동부시간 6월 13일 15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6.13(화)	5월 소비자 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)
6.14(수)	생산자물가지수(Producer price index)
6.15(목)	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(Initial jobless claims)
6.16(금)	소비자 심리 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8	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	2023.06월
US23-17	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6월
US23-16	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5월
US23-15	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	2023.05월
US23-14	미국 반도체 R&D 지원 정책 방향	2023.04월
US23-13	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4월
US23-12	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	2023.04월
US23-11	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	2023.03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해드림 심층보고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2 (2023.5.31)	 <p>GSK 백신 전문가 '민지영' 박사 인터뷰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 R&D의 중요성!</p>	
코인시-11 (2023.5.8)	 <p>자동차산업협회 'John Bozzella' 회장 인터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미래!</p>	